

페르시아 파르티아(Parthia)왕조 남자복식 연구

장 영 수

독일 고고학 연구소(비교 고고학 분과) 객원 연구원

A Study on Men's Costumes of the Parthian Period in Persia

Dr.-Phil. Youngsoo Yi-Chang

Visiting Researcher,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
(Commission for General and Comparative Archaeology)

(2005. 12. 12 투고)

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the costumes of Parthian Period in Persia which had powerful influences on the Occidental and Western cultures in B.C 3 to A.D 3. With different types of Parthian costumes in each period, this study shows what types of costumes people used to wear and how they were co-related with its surrounding cultures.

The ancient costumes of Korea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elements of the Northern part at that time. To make an intensive study of Korean ancient costumes, these Parthian costumes which are known to those of northern nomadic tribes are studied to provide basis elements for study between the Korean styles and the exotic styles.

The basic forms of the Parthian styles were jackets and trousers. They consisted of three kinds of jackets such as those to be adjusted in the front, tunics and coats. As for trousers,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those with horizontal pleats, round-side pleats and vertical pleats.

- 1) The jacket to be adjusted in the front was long enough to reach the hip and fit the body reasonably tight, and its neckline was shaped into V-type. It was a very popular style among the people of high and low classes
- 2) The tunics had narrow sleeves. It was a one-piece pattern which reached the knees. It was settled with a belt on the waist. Its neckline was shaped into the round but its slit was not clear. Its styles were into tight-fit and drapery ones.
- 3) The coats were almost similar to the jacket to be adjusted in the front with short length, but they were entirely long and open. They appeared later than the short jackets and the people of high class seemed to wear these styles.
- 4) Trousers with horizontal pleats - They had almost horizontal pleats on them, and they were a little tight. They seemed to be the early style in the Parthian period.
- 5) Trousers with round side-pleats - With saggy side pleats on them, these trousers had round pleats like a drapery style. This pattern was also considered Hellenistic elements shown in the Parthian costumes. The trousers consisted of the underdrawers and the leggings (called salwar or shalwar), which is thought to emphasize its functionality for its wearer to mount a

horse with more ease.

- 6) Trousers with vertical pleats - With straight vertical pleats on them, these trousers had some volumes and bias decorations in the middle of them. These styles were thought to be worn by the ruling class of the Parthia from early to late period.

Key words: Parthia(파르티아), parthian men's costumes(파르티아 남자복식), jacket(저고리), trousers(바지) coat(코트), culture exchange(문명교류)

I. 서론

페르시아 파르티아(Parthia)왕조는 기원전 3세기 부터 기원후 3세기(B.C. 250-A.D. 224)까지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조로 파르티아(Parthia)라는 이름은 아케메네스(Achemenes) 왕조 때 카스피해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곳에 살던 이란 계통의 반 유목민 파르니(Parni 혹은 아파르니-Aparni)라는 종족이 그들의 지도자 아르사키드(Arsacid)¹⁾의 인솔 하에 파르티아 지방을 완전 점령하고 파르티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데서 유래한다. 파르티아 왕조를 아르사키드(Arsacid)의 이름을 따서 아르사키드(Arsacid)왕조라고도 한다²⁾. 이들은 지역적 위치를 이용하여 동서양의 문명교류로인 실크로드를 점령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는 한편 동서양의 문명교류를 간섭하며 그 두 문명을 받아들여 높은 문화의 꽃을 피웠었다. 이런 파르티아의 문화는 실크로드를 타고 동서양으로 전파되기도 하여 두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파르티아 남자 복식의 기본형은 유목민족 복식의 기본형인 바지 저고리의 형태인데 이는 그 전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바지 저고리의 형태를 이은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파르티아 왕조가 그리스 문명의 후계자 셀로키드(Seleucid) 왕조와 부딪혔던 시기에는 그리스 문화와의 접변으로 파르티아 복식 전반에 드레퍼리성이 첨가되어 많은 주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파르티아 왕조 후기 파르티아가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에는 그들 내부 문화의 성숙으로 인해 복식에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기도 했었다. 파르티아 왕조 후기의 이런 복식은 파르티아 동서쪽으로 접해 있던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팔

미라와 쿠산왕조 복식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되었던 복식문화의 유사성을 토론했을 수 있으며, 아울러 파르티아가 실크로드 복식문화에서 갖는 중요성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실크로드의 문명교류사를 연구하던 중 오랫동안 동서양의 중간지점에서 높은 문화의 꽃을 피웠던 페르시아의 문화가 동서양에 미친 영향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이미 페르시아 대제국의 시조인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연구에 대해 몇 편의 논문³⁾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 뒤를 잇는 작업으로 아케메네스 왕조를 이었던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 연구이다.

1. 연구의 목적

한국 고대복식의 바지 저고리는 북방민족의 복식 유형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북방민족 유래설 혹은 우리나라에 북방 문화의 수용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한국 복식의 바지 저고리의 유형 문제, 깃과 여밈의 문제 또 한국복식 전반에 나타나는 외래적인 요소 등은 한국 복식 자체 연구에서만 해석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주변의 외래 복식과의 비교 연구에서 분석되어야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페르시아 복식은 바지 저고리를 기본형으로 하는 전형적인 북방유목민족의 복식으로 그 유형이 우리나라 고대복식과 비슷하다. 그러기에 페르시아 복식의 연구는 한국 복식의 유형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방유목민족의 복식으로 알려진 파르티아 복식을 유형별, 시기별로 분석하여 언제 어떤 유형이 착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바지저고리의 여러 유형을 정리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 목적은 북방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

명되는 한국 고대 복식유형과 외래적 요소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사에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갖는 의미는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중요성이 잘 인식되어있지 못한 까닭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일본문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일본문헌은 직접적인 자료 수집에 의한 분석보다는 대부분 유럽의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우리는 일본인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또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제3의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써 제 2의 자료로 '독일 고고학 연구소'를 비롯하여 '영국의 페르시아 연구소'에서 직접 발굴한 예술작품들, 즉 그 시대에 활용했던 동전들, 조소상, 암각화 등의 가시적 자료와 그것을 연구 분석한 보고서, 연구 논문, 또 역사서등의 문헌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원본의 직접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지만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는 연구 조건이 이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후일을 기약할 뿐이다.

연구의 범위는 시대적으로 파르티아 왕조에 한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복식의 유형을 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지와 저고리의 형태만 분석하고 머리쓰개와 신발에 대한 분석은 또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 연구로 미룬다.

II. 이론적 배경

1. 페르시아 파르티아(Parthia)왕조의 역사적 배경

카스피해 동쪽 오호스강(지금의 아트레크-Atrek

강)에서 살던 이란계 유목민족 파르니(Parni 혹은 아파르니-Aparni)족이 그의 지도자 아자르케스(Asarces)의 지도하에 세력을 키워 기원전 247년(239?년)카스피해 동남쪽 파르티아 지방(Parthia, Parthien)⁴⁾을 공격하여 이 지역 셀로이키드(Seleucid)왕조 총독 안드라고라스(Andragoras)를 죽이고 파르티아 지방을 차지하였다⁵⁾. 이 파르니족이 파르티아 지방을 점령한 후에 파르티아인(Parthian, Parthen)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카스피해 동쪽지역 헬레니즘의 도시 니사(Nisa)에 수도를 정하고 그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아자르키드(Asarcid)왕조(파르티아 왕조)를 열며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그림 1)



〈그림 1〉 파르티아 제국과 그 주변 지역⁶⁾

파르티아는 기원전 2세기 때인 미트리다테스 1세(Mithridates, I:171-139/8 BC)시기에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서쪽으로는 기원전 141년 티그리스(Tigris)강 유역에 있던 셀로이키드(Seleucid)왕국을 공격하여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를 점령하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Euphrates)강 사이의 기름진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상당한 잇점이 있는 것이었다.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 연안을 통해 이 당시 증가하고 있는 무역을 통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129년 미트리다테스 2세는 티그리스 강 유역 크테지폰(Ktesiphon)으로 수도를 옮기며 서쪽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더 주력하며 이 지역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도 적극 수용하였다. 한편 동쪽으로는 그레코 박트리아(Graeco-Baktria)제국을 합병하여 인더스(Indus)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동서로 펼쳐진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파르티아는 동서역의 무역로인 실크로드를 지배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했다.

미트리다테스 2세(Mithridates, II: 124/3-88/7 BC)는 미트리다테스 1세가 마련한 대 제국의 틀을 완성시켜 나가는 한편 영토 확장 또한 시도하여 기원전 113년에는 북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하고 셀로이키드 왕국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두라-유로포스(Dura Europos)를 점령하였고 더 나아가 북 메소포타미아 위쪽지역인 아르메니아(Armenia)지역을 점령하려다 기원전 92년 로마와 부딪히게 된다. 이때부터 파르티아 왕조는 로마와 오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싸움은 왕조 끝까지 계속되었다. 이렇듯 파르티아 왕조는 미트리다테스 1세, 2세의 재위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최고의 절정기에 다다르며 동서역의 무역로를 통제하였고 막강한 부 또한 축적하였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파르티아는 기원전 53년 오로데스 2세(Orodes II)때 카르하이(Karrhai)에서의 대승리이후 로마에게 계속 밀리게 되었고 파르티아의 중앙집권력이 약해졌던 프라테스 4세(Phraates IV: 38/7-2 BC)때는 아르메니아(Armenia)지역에 대한 로마의 점령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로마와 파르티아는 오랜기간 아르메니아를 놓고 계속 전쟁을 벌이다 로마의 트라이안(Traian) 황제 때인 114년에서 117년까지 행해진 로마의 동쪽지역 정벌에서 파르티아는 패배하였다. 그 후 힘을 재장비한 파르티아는 왕조 마지막으로 폴로가이제스4세(Vologais IV: 147/8-191/2년)때 아르메니아와 시리아를 차지하기위해 공격하였으나 이는 161년에서 165년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반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반격에서 로마는 파르티아의 수도 티그리스 강 유역의 크테지폰(Ktesiphon)을 점령하여 북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며 파르티아를 위협하였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세력이 약해진 파르티아는 아르타바노스 4세(Artabanos IV:213-224)때인 224년, 3세기초 이란 서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키워오던 이란계 사산조의 파백(Pabag)과 아르다시르(Ardashir)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다⁷⁾.

2. 페르시아 파르티아(Parthia)왕조의 예술과 복식

한 시대의 정신 문화의 흐름을 영구적인 가치로 환원시키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한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복식이 묘사된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은 그 시대 문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복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기에 우선 파르티아 예술의 전반적인 흐름과 복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민족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그 민족의 예술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르티아 예술도 파르티아 왕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두 시대로 구분되는데, 서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대한 파르티아 제국을 완성했던 미트리다테스 2세(Mithridates, II) 때(약 기원전 123년)를 기준으로 전,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는 파르티아 왕조 초기,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전 123년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미트리다테스 1세(Mithridates, I)가 파르티아 대제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르사키드조 파르티아인(Arsakidischen Parther)들 고유의 확고한 왕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미트리다테스 1세(Mithridates, I)는 기원전 141년 파르티아 서쪽에 있던 셀로이키드 왕국을 점령한 후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융합을 시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파르티아 왕조 초기에는 3가지 예술의 형태, 즉 헬레니즘 예술과 그레코-로만(Greco-Roman) 이란의 예술 또 순전한 파르티아 예술 등이 공존했었다. 이런 연유로 전체적인 예술의 흐름에서는 통일적인 파르티아의 예술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다른 예술적 요소를 따오거나 융합시켜 만든 서로 다른 예술의 형태만이 존재했었다.

그 한 예로 초기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니사(Nisa)⁸⁾에서 발견된 예술품들에서는 주로 헬레니즘과 이란적 요소가 섞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니사(Nisa)의 왕궁이 대표적인 예로 이 왕궁의 옆

면의 모습은 헬레니즘 시대인 기원전 3-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형태이나 그 세부 장식들은 파르티아적 요소인 화살통(활과 화살)의 묘사와 돌로 만든 아케메네스 왕조의 장식이 섞여있어 그 시대 예술의 혼용주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미트라다트키르트(Mithradatkirt)에서 발견된 기원전 2-1세기로 추정되는 리튼(ryton)으로 기본형은 헬레니즘 시대의 형태이나 위에 묘사된 신화적 장면은 순전한 그리스 식이며 여기에 묘사된 대리석 조소상들은 나체나 주름이 많은 형상으로 묘사된 헬레니즘의 형태들이다⁹⁾.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파르티아 복식은 변화하게 되어 그 이전에 착용했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저고리는 그리스 식의 주름 많은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¹⁰⁾.

후기는 약 기원전 140년 이후부터 파르티아가 멸망하는 기원후 3세기 까지를 말하는데 이시기는 미트라다테스 2세에 의해 파르티아가 대 제국을 완성하며 이란을 재정복하였던 시기로 파르티아 예술은 아케메네스왕조와 헬레니즘의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 파르티아의 고유의 요소를 완성시켜나갔던 시기였다¹¹⁾. 그러나 헬레니즘의 영향이 계속된 기원후 1세기 초 아르타바누스2세(Artabanus II: AD 10-38)때까지는¹²⁾ 오히려 파르티아 예술 전반에 헬레니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었다.

후기의 복식은 전기에서 강조되었던 그리스 식의 드레퍼리 스타일이 사라지고 몸에 꼭 맞는 타이트한 형태에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파르티아 고유의 스타일로 바뀌어 갔다.

파르티아 예술의 특징으로는 대상을 정면으로 묘사하는 정면성(Frontality)과 그 표현의 강인함, 대칭적 표현, 또 표면의 세부 묘사 등이 지적되고 있다¹³⁾. 이 정면 묘사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측면묘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러시아 학자 로스토프체프(Michael Rostovzeff)가 파르티아의 예술의 특징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것인데, 이는 원래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유목민족의 예술의 특징적 요소였던 것이, 그곳의 토착민인 파르티아 인이 페르시아 전 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 전해지게 되었다¹⁴⁾고 한다.

또 한 가지 파르티아 예술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후기에 나타나는 정교하게 장식되어진 파르티아 옷

과 보석으로 예술 작품의 강인한 표현과는 다르게 파르티아 예술의 우아한 멋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미적인 요소는 파르티아 예술이 갖는 특징으로 이는 여러 지역의 특징적 요소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파르티아의 절충주의의 한 단면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그리스와 근동의 형태와 모티브를 적극수용하고 조합하여 자기들의 새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파르티아 예술의 특징이었다¹⁵⁾.

Ⅲ. 페르시아 파르티아(Parthia)왕국의 남자복식 분석

파르티아 남자복식의 기본 형태는 바지(袴)와 저고리(襦)의 형태로 긴 소매의 저고리(자켓(jacket)이나 혹은 튜닉(tunic))을 긴 바지와 함께 착용했다. 이외에 긴 소매의 코트도 가끔 보이는데 이런 기본 구조는 전 왕조인 아케메네스 왕조 복식의 기본 형태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바지 저고리가 기본형인 페르시아의 복식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점령한 후에도 그리스 복식에 밀려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명맥을 이어오다가 파르티아 시대가 되면서 다시 파르티아 전 지역, 즉 시리아에서 북 인도까지 걸친 지역에서 착용되어지기도 했다. 이런 파르티아의 바지 저고리의 형태는 현대 복식의 바지 저고리 형태의 모체가 되었다고 한다¹⁶⁾.

1. 저고리(襦)

파르티아 예술 작품에 묘사되어있는 저고리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앞여밈형 저고리, 튜닉, 코트로 이는 모두 소매가 좁고 길며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되어 있다. 앞 여밈형 저고리와 코트는 앞 트임형이나 튜닉은 트임이 분명하지 않다.

1) 앞 여밈형 저고리

앞 여밈형 저고리는 몸에 타이트한 스타일로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고 V자형 목둘레를 형성하며 앞에서 여머지는 형태인데 파르티아 왕조 초기 저고



〈그림 2〉 앗수르(Assur)의 장례식 기념석주에 묘사되어 있는 파르티아 시대 초기 앞여밈 저고리¹⁷⁾



〈그림 3〉 파르티아 초기 앞 여밈 저고리, B. C. 2-1 세기, 샤미,¹⁸⁾

리는 기원전 1세기경(B.C. 89)으로 편년되는 북 메소포타미아지역 앗수르(Assur)의 장례식 기념석주에 묘사되어 있는 남자상에 관찰되고 있다(그림 2). 정면으로 서 있는 남자상은 V자형 목둘레의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저고리의 소매는 좁고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와 있다. 저고리 앞에 가선이 희미하게 보인다¹⁹⁾. 이는 파르티아 이전 왕조인 아케메네스 왕조의 저고리 형태와 비슷하다²⁰⁾고 설명되고 있다. 저고리외에 파르티아 왕조 초기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했었던 예는 파르티아 초기에 주도되었던 동전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초기 파르티아의 동전에 묘사된 아르사키드 1세, 2세(Arsacid, Arsaces I, II), 미트라다테스 1세(Mithra-

dathes I: B.C. 171-138) 왕등이 착용한 모자는 모자 끝부분이 옆으로 쳐져있고 귀 덮개가 달려 있으며 모자 뒤에는 머리띠가 묶여져 있는 형태로 아케메네스 왕조 때 정부 관리(자트라프-Satrap)들이 썼던 모자를 그대로 착용한 것이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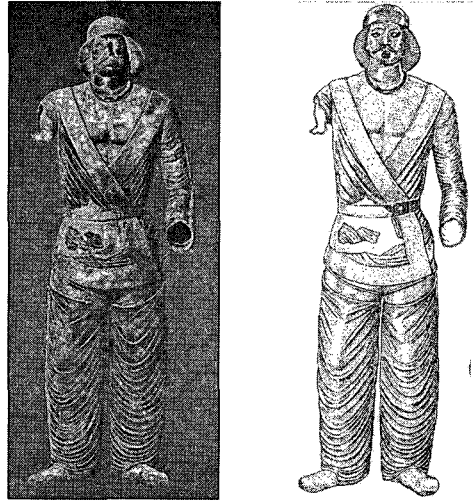
앞트임이 선명한 저고리의 모습이 샤미(Shami) 무덤에서 발견된 조개 조각품(그림 3)에서 관찰되고 있어 파르티아 초기 앞 여밈형 저고리의 형태를 더욱 확실히 살펴볼 수 있다. 기원전 2-1세기로 편년되는 이 작품에서 활의 사수와 말을 타고 있는 듯한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 들은 모두 소매가 좁은 앞 여밈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그 중 사수의 저고리는 가슴 앞에서 큰 V자를 형성하며 밑 허리 부근에서 좌임으로 여며지고 허리에서 가는 끈이나 혹은 가는 벨트로 고정되고 있다. 저고리 앞단 끝은 가선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저고리의 형태는 이 당시 귀족층이 아닌 사람들이 착용한 저고리의 전형적인 형태²²⁾이다. 그 맞은 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저고리도 비슷한 형인데 저고리 앞 끝단의 가선이 무너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것으로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수 보다는 높은 신분의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샤미(Shami)²³⁾에서 발굴된 1m 90cm의 왕자 조소상(그림 4)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저고리가 관찰된다. 이 조소상이 착용하고 있는 저고리는 위에서 살펴본 형태의 저고리와 거의 같은 형태로 좌임이며 큰 V자형 목둘레를 만들고 있으나 저고리 앞과 아래끝 부분에 있는 가선은 더 굵다. 이 가선의 굵기는 신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따른 변화인지는 이 두 그림의 비교에서는 알 수 없으나 (그림 3)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신분의 구별은 가선에 장식을 더하든지 혹은 가선의 굵기를 넓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샤미(Shami)는 1935년 영국의 고고학자 아우엘스타인(Auel Stein)²⁴⁾이 파르티아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발굴하였던 곳이다. 이곳은 파르티아 왕조에서 수사(Susa)나 하마단(Hamadan)처럼 행정의 중심지도 아니였고 또 비스톤(Bisuton)이나 자르에 폴레조합(Sar-e Pol-e Zohab)처럼 파르티아 왕조의 무역의 중심지도 아니였지만

옛부터 동 서양문화가 만났던 지역인 쿠제스탄(Xuzestan) 지역의 일부분으로 이곳의 발굴품들은 특히 헬레니즘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샤미에서는 예술품들의 정확한 편년을 알아 볼 수 있는 제명(題銘)이 발견되지 않아 발굴된 예술품들의 유형과 형식을 고찰하여 그 편년을 추측하고 있다²⁵⁾. 파르티아의 전통 복식으로 생각되는 바지 저고리를 착용한 1m 90cm의 조소상에 대한 편년도 그 조소상의 유형과 스타일에 따라 구분하여 기원전 2세기 중반²⁶⁾일 것이라는 견해와 기원 후 1세기 중반²⁷⁾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V자형 목둘레 튜닉과 장식적인 가선의 저고리는 기원전 2세기 때 주조된 파르티아 동전에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²⁸⁾이기도 하고, 저고리 형태로 봐서는 앞에서 살펴본 형태와 비슷하므로 기원전 1세기 작품으로 편년되기도 한다²⁹⁾.

파르티아 왕조도 다른 고대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로서 그 사회는 왕 밑에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로 구분되어졌었다. 또한 이들은 궁중에서 서열 순위를 표시하기위해 헬레니즘의 궁중호칭제도(hellenistischen Hoftitelsystem)를 그대로 사용하기도하였는데³⁰⁾, 그 중 귀족들은 파르티아인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써 이들은 이런 면이 겉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노력했고 아울러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도 신경을 쓰고 가꾸어 다른 일반평민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했다³¹⁾고 한다. 이런 파르티아의 귀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m90cm의 샤미 조소상이다. 이 상은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큰 크기의 상으로 이는 몸을 크게 만들어 그것을 귀족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파르티아 귀족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큰 목걸이와 저고리의 가선 또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파르티아 귀족들의 복식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샤미 왕자 상처럼 실제 사람보다 큰 상의 주조는 기원전 1세기 중반에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근동지방에서 행해졌던 예술의 한 특징적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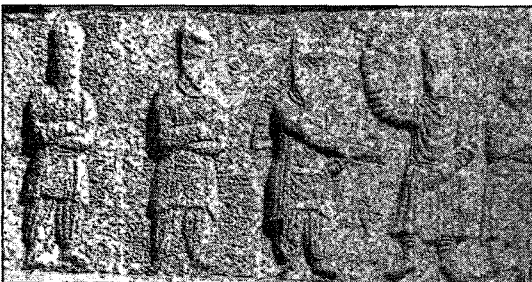
<그림 4> 샤미(Shami)출토 1m 90cm의 조소상 저고리³³⁾(左)
<그림 4-1> 상세도³⁴⁾(右)

2) 튜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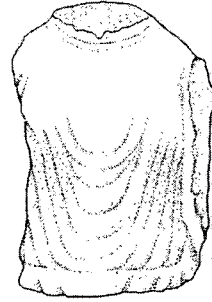
상의의 두 번째 형태는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튜닉으로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되어지며 바지 위에 착용하고 있다. 대개는 소매가 좁고 목둘레는 둥근형이고 트임은 확실하지 않다. 이 형태의 튜닉은 파르티아 시대 전반에 걸친 예술품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초기 시대 튜닉의 형태는 기원전 140년³⁵⁾으로 편년되는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에서 발견된 아르자키드(Arsacid) 왕과 왕 수행원들을 묘사한 암각화(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몸에 비교적 타이트한 튜닉과 주름이 많은 드레퍼리 형의 두가지 형태의 튜닉이 보이고 있다. 중앙에서 있는 사람은 그가 쓰고 있는 리본이 달린 높은 타원형의 모자로 인해 아르자키드(Arsacid)왕으로 해석되는데, 이 왕과 왕 오른쪽의 왕 수행원들은 둥근 목둘레(그림 6)와 좁은 소매의 긴 튜닉을 입고 있고 튜닉은 허리에서 벨트로 묶여져 있다. 그러나 아르자키드(Arsacid)왕 왼쪽에서 오른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튜닉은 무릎 밑까지 내려오며 왕과 왕의 오른쪽 수행원들이 입은 튜닉보다는 헐렁하고 옆주름이 많이 잡혀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또한 왼쪽 어깨 위에는 긴 쇼울(shoulder roll)이 걸

쳐져 있다. 이 튜닉을 카와미(Kawami)는 엘리마이스(Elymais) 왕국의 튜닉³⁶⁾이라고 보고 있는데 엘리마이스(Elymais) 왕국은 파르티아왕조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셀로키드 왕국을 일컫는 말³⁷⁾로서 헬레니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조였다.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는 수사(Susa)와 샴이(Shami)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엘리마이스(Elymais) 왕국에서는 동양과 서 아시아의 무역통로로 이용되던 쿠제스탄(Xuzestan) 지역³⁸⁾의 일부분에 속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 암각화에서 보이는 주름이 많은 튜닉을 엘리마이스(Elymais) 왕국의 튜닉으로 보는 카와미(Kawami)의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듯 하다.

왼쪽 어깨에 걸쳐진 쇼울은 엘리마이스(Elymais) 왕국의 왕이 걸치는 전형적인 복식요소³⁹⁾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른 손을 쳐들고 주름있는 헐렁한 튜닉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엘리마이스(Elymais)의 왕이 아니라 그 지방 지도자나 혹은 제사장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엘리마이스(Elymais)왕은 튜닉 대신 코트(garments)를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⁰⁾. 이 암각화는 파르티아의 아르사키드(Arsacid) 왕과 엘리마이스(Elymais)의 한 지도자(혹은 제사장)가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에서 행한 종교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물로 추측되고 있다⁴¹⁾. 또한 이 작품이 편년되는 기원전 140년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파르티아가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던 시기⁴²⁾로 이 드레퍼리형의 튜닉은 그 문화적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겠다.



〈그림 5〉 파르티아 왕조 초기 바르드 네산데(Bard-e Neshandeh)암석화에 묘사된 코트형 저고리⁴³⁾



〈그림 6〉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 암석화에 묘사된 둥근 목둘레, 상세도⁴⁴⁾

이 드레퍼리형의 튜닉은 샴이에서 발견된 27cm의 공양자상(그림 7)에서 더 자세히 관찰되는데 머리가 없고 오른손도 훼손되어 있는 이 상은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을 입고 있으며 튜닉은 허리에서 가는 허리띠로 고정되어 있다. 앞부분의 가로 주름과 옆의 세로 주름에서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파르티아 고유의 튜닉보다는 부드럽고 우아한 멋이 느껴진다. 목둘레는 떨어져 나간 머리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관찰할 수 없으나 양 어깨 밑에 표시된 주름선으로 보아 원형으로 짐작된다. 또한 왼쪽 어깨 위에는 앞에서 설명한 긴 솔이 걸쳐져 있어 튜닉의 옆 주름과 조화를 이루며 드레퍼리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바르드 네산데(Bard-e Neshandeh)와 샴이의 같은 형의 튜닉은 이 두 지역이 한 문화권임을 말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림 7〉 27cm의 샴이 공양자 상의 긴 튜닉⁴⁵⁾

긴 튜닉은 파르티아 왕조 후기의 조소상에도 나타나는데 기본형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주름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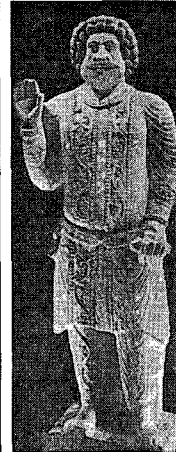
진 타이트한 형태를 보이며 보다 장식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파르티아 왕조 후기 때 파르티아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는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던 시기로 명실공히 파르티아 대제국으로 자리매김 했던 시기였다. 또한 예술 전반에는 헬레니즘적 요소는 사라지고 파르티아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장식적 튜닉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가 있고 넓은 벨트로 고정되어지며 번쩍이는 옷단 장식이 있는 형태로 매끄럽고 뽀뽀한 직물로 만들어졌음을 연상케 하는 튜닉이고 다른 하나는 몸에 꼭 맞는 스타일에 곱고 부드러운 주름이 있고 앞면에는 장식이 붙어있으며 좁은 벨트로 고정되어지는 튜닉이다⁴⁶⁾. 전자는 주로 파르티아 동쪽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파르티아와 동쪽에서 접하고 있는 쿠산왕국의 조소상, 수르크 코탈(Surkh Kotal)왕의 조소상(그림 8)과 마투라(Mathura) 지역 카니시카(Kanishka)의 조소상(그림 9)에서 그 특징이 관찰되고 있다. 반면 후자는 파르티아의 서쪽지역 샤미(그림 10)와 하트라(Hatra)(그림 11, 12)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 파르티아와 서쪽에서 인접하고 있던 시리아의 팔미라(Palmyra) 튜닉(그림 13)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⁴⁷⁾ 이 지방 튜닉은 허리 밑 부분에 부드러운 주름이 있고 상의 앞면 중앙에는 원형 고리장식이 있다. 또한 파르티아 서쪽 지역에서 착용되어졌던 튜닉의 형태 중 파르티아 말기의 형태는 기원후 215년으로 편년되는 파르티아 말기의 부조물중에서도 관찰되는데, 파르티아 서쪽 지역으로 샤미 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사(Susa)에서 발견된 아르타보노스(Artabonos V) 5세 왕과 그의 관리(Satrap) 카봐작(Kawasak)을 묘사한 압각화(그림 14)에서이다. 왕은 카봐작에게 권력의 상징인 링을 건네주고⁴⁸⁾ 있는데 카봐작은 무릎 위에까지 오는 튜닉을 입고 있다. 둥근 목둘레의 튜닉은 앞 중앙에 꼬불꼬불한 장식선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고 허리에서 가는 허리띠로 고정되어 있어 위 샤미 귀족의 튜닉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그림 8〉 쿠산왕국, 수르크 코탈(Surkh Kotal)왕의 조소상에 묘사된 코트형 상의(기원후 130)⁴⁹⁾(左)

〈그림 9〉 쿠산왕조, 카니시카(Kanishka) 왕, 마투라(Mathura), A.D. 130⁵⁰⁾(右)



〈그림 10〉 파르티아 중기 이후 서쪽지방 샤미의 튜닉, Rabenu Collection⁵¹⁾(左)

〈그림 11〉 하트라(Hatra) 귀족의 튜닉, A.D. 2세기⁵²⁾(中)

〈그림 12〉 하트라(Hatra)왕, 사마트룩(Samatruq)의 튜닉, A.D. 1-2세기, 바그다드(Baghdad) 박물관⁵³⁾(右)



〈그림 13〉 팔미라(Palmyra)의 튜닉, 2세기, 루브르 박물관⁵⁴⁾



〈그림 14〉 앞 여밈 저고리, 아르타보노스(Artabonos V) 5세왕과 그의 관리(Satrapen) 카봐작(Kawasak), A. D. 215⁵⁵⁾



〈그림 15〉 하트라(Hatra) 우탈(Uthal)왕이 착용한 코트(기원전 2세기)⁵⁸⁾

3) 코트

코트는 형태 면에서 위에서 설명한 길이가 짧은 앞 여밈형 저고리와 거의 같으나 길이가 길고 착장 방법이 달라 앞에서 여며지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 이 코트는 위의 짧은 여밈형 저고리보다는 약간 후에 나타난다⁵⁶⁾. 이 긴 코트의 형태는 초기 작품에서는 바르드에 네산테(Bard-e Neshandeh)의 암각화(그림 5)에서 유일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중앙의 아르자키드왕과 오른쪽의 왕의 수행원이 착용하고 있으며 왕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코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이 코트는 신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착용되어졌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후기에 가서 이 코트는 동, 서양의 왕의 조소상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어 이 코트는 신분에 의해 제한적으로 착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쪽 하트라(Hatra)의 우탈(Uthal)왕의 조소상⁵⁷⁾(그림 15)을 들 수 있는데, 초기 코트 보다 화려하다. 한편 파르티아 동쪽지방에서 관찰되는 코트의 형태는 위에서 설명한 쿠산의 수르크 코탈(Surkh Kotal)왕의 조소상(그림 8)과 카니스카왕의 조소상(그림 9)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코트의 형태는 같으나 코트의 질감과 장식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위의 파르티아 저고리를 형태별로 착용시기, 착용지역등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2. 바지(袴)

파르티아 복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지로 파르티아 예술작품에 묘사된 바지는 그 형태에 따라 수평 주름의 바지, 둥근 옆 주름의 바지, 수직 주름의 바지등 크게 세 형태로 구분된다.

1) 수평주름의 바지

수평 주름의 바지는 바지에 거의 수평으로 주름이 있으며 타이트한 형태이다. 이 바지는 파르티아 초기 작품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르드에 네산테(Bard-e Neshandeh) 암각화(그림 5)에서 관찰되는데 아르자키드 왕 왼쪽에 드레페리형의 긴 튜닉을 입고 있는 부조상이 이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바지는 반 부츠 밑으로 들어가게 착용되어졌다.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와 그 시대 주변 지역의 복식을 잘 관찰 할 수 있는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아파다나(Apadana) 계단 조공도에서 이 수평주름 바지는 박트리아(Bactria)인⁵⁹⁾(그림 16)이 착용하고 있어 이 바지는 이미 아케메네스 왕조시대 때 카스피해 동쪽지역인 박트리아(Bactria)

<표 1> 파르티아 저고리 분류

	기본형	착용시기	형태변화	착용자	착용지역
앞 여밈형 저고리	V 목둘레, 좁은 소매, 엉덩이 길이,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	B.C. 2-1세기		제사장, 왕, 사수	서부
튜닉	등근목둘레, 좁은 소매,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 1)몸에 타이트한 스타일-무릎길이	초기(B.C. 140) 초기(B.C. 140) 후기		왕, 왕 수행원	서부
	2)주름있는 드레퍼리형-종아리까지,	후기		지방 지도자 (혹은 제사장) 왕	서부
	3)장식 튜닉 a)복잡정교한 무늬와 넓은 벨트	후기		왕	동부(쿠산, 마두라)
	b)매끄럽고 뻣뻣한 직물 c)곱고 부드러운 주름, 좁은 벨트	후기		왕	서부(샤미, 하트라, 팔미라)
	d)앞면에 꼬불꼬불한 장식, 가는 허리띠	말기		귀족	서쪽(수사)
코트	좁은 소매, 앞 오픈, 무릎 길이	초기, 후기	화려, 뻣뻣한 질감	왕, 왕 수행원	서부, 동부

지역에서 착용되었던 바지로 생각된다. 그런데 박트리아(Bactria) 지방은 파르티아인들이 원래 살았던 카스피해(Caspian Sea) 동쪽지역 파르티아 지방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들은 비슷한 복식문화권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파르티아 왕조 중, 후기의 작품에 이 수평주름의 바지는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르티아인이 파르티아 왕조 건립 후 왕조 초기까지 이 바지를 착용한 듯하다.



<그림 16> 수평 주름의 바지, 아파다나 계단 조공도, 박트리아인(60)

2) 등근 옆 주름의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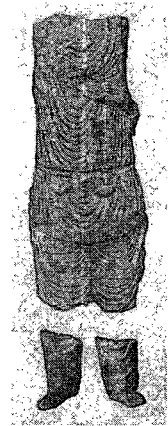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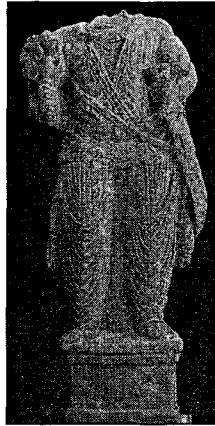
등근 옆 주름 바지는 바지 전체에 옆 주름이 등근 모양을 만들며 늘어져 있어 드레퍼리 형태를 보이는데 이 바지는 앞에서 설명한 샤미 왕자 상(그림 4)에서 잘 관찰되고 있다. 바지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이 샤미 왕자 상은 저고리 밑에 땅에까지 끌리는 긴바지를 입고 있으며 이 바지는 속바지와 그 위에 입은 겉 바지(salwar, shalwar, 혹은 레깅-leggings)로 이루어져있다. 그림에서 앞 넓적다리 위에 옆으로 굽게 쳐진 주름은 겉 바지의 끝 부분으로, 이 주름으로 인해 겉 바지와 속바지가 구별되고 있다. 고다르트(A. Godard)는 그의 저서 이란의 미술(The Art of Iran)에서 아마도 이 겉 바지는 말 탈 때 마찰을 위해 바지위에 덧입은 것으로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것이며 아마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61). 그러나 바지 윗 부분에서 발목까지 겉 바지 전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옆주름은 부드러운 타원형으로 일반 가죽의 질감으로 만들어지는 주름보다 훨씬 부드러운 형태이다. 그래서 카와미(Kawami)는 이 겉 바지의 소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확실한 소재를 알 수는 없으나 부드러운 주름의 형태로 보아 바지

의 재료는 가죽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바지에 아주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있는 바지가 파르티아와 동쪽에 인접했던 쿠산(Kushan) 지역 부트카라(Butkara)⁶³⁾(그림 17)와 파르티아 서쪽 팔미라(Palmyra)에서 발굴된 조소상(그림 18)⁶⁴⁾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이 두 지역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파르티아를 중심으로 하여 같은 복식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상에서 보이는 주름은 위 샤미 왕자 상의 주름보다는 부드러운 형태로 가죽이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나 그 소재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부트카라(Butkara) 조소상이 착용하고 있는 겹 바지를 비롯하여 앞여밈 저고리 형식이 위에서 설명한 파르티아 샤미 왕자 상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속바지 형태로 부트카라(Butkara) 조소상의 속바지에는 바지 중앙에 바이어스 장식이 있다. 또한 기원후 2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팔미라(Palmyra) 조소상에서도 속바지와 겹바지의 형태는 부트카라(Butkara) 조소상과 거의 같은 모습이나 바지 주름은 위 두 상의 주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 아주 고운 천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바지와 겹바지의 이중구조의 형태는 원래 말 탈 때의 기능성을 위주로 하여 생겨난 형태이므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위 두 조소상의 바지는 원래의 기능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중구조의 바지형태는 원래 기능성을 강조하여 생겨난 형태가 나중에 일반적인 바지 형태로 고정되어졌으며 소재 또한 그 용도에 맞게 변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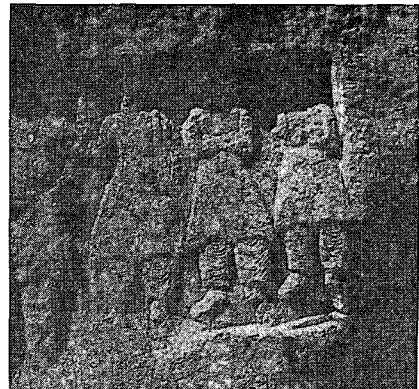
위 두 바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속바지 중앙에 있는 바이어스 장식이다. 이는 파르티아 중,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인데⁶⁵⁾ 그 모양은 다양하다. 부트카라(Butkara)왕의 속바지에는 바이어스가 좁은 간격으로 붙어져 있고 팔미라왕의 속바지에는 정교한 무늬가 들어있는 바이어스가 비교적 넓게 붙어 있다. 또한 (그림 13)의 하트라(Hatra)왕, (그림 14)의 파르티아 관리에서는 동그라미를 연이어 붙인 연주문 모양의 바이어스가 보이고 있다.

파르티아 말기에 등근 옆 주름 바지는 주름이 깊지 않고 약간 퍼진 형태로 나타나는데 속바지와 겹바지의 이중구조가 아닌 바지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이 형태는 파르티아 서쪽지방, 짜그로스(Zagros) 산맥에서 샤미 지역 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흉에 아즈다르(Hung-e Azhdar)에 있는 기원후 2-3세기 작품으로 편년되는 암각화⁶⁶⁾(그림 19)에서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림 15> 하트라(Uthal)왕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파르티아 말기 때 파르티아 서쪽 지역의 바지 형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등근 옆 주름 바지의 부트카라(Butkara) 조소상⁶⁷⁾ D. Faccenna, Pl. CDLXXX.(左)

<그림 18> 등근 옆 주름 바지의 팔미라(Palmyra) 조소상⁶⁸⁾(右)



<그림 19> 파르티아 말기 옆 주름 바지⁶⁹⁾

3) 수직 주름의 바지

파르티아 바지의 세 번째 형태는 직선의 수직 주름 바지로 파르티아 예술작품 중 초기 작품인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 (그림 5)의 암각화와 기원후 1-2세기작품으로 편년되고 있는 비스툰(Bistun)에서 발견된 암각화에서 관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의 암각화에서 중앙의 아르사키드(Arsacid) 왕과 왕 오른쪽 수행원들은 이 튜닉 밑에 수직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바지는 발목에서 밴드 모양으로 고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위 몸배 바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비스툰(Bistun)에서 발견된 기원후 2세기로 편년되는 정면묘사의 남자 상 암각화(그림 20)에는 비교적 형상이 뚜렷이 남아있는데, 성소에서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 듯 서있는 남자는 긴 튜닉과 그 밑에 굵은 직선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고 있다. 바지는 타이트하지 않은 형태로 약간 볼륨이 있으며 긴 부츠 속으로 들어가 있다. 또 수직주름의 바지 중간에 무늬있는 바이어스 장식이 붙어있는 바지가 바르드에 네산데(Bard-e Neshandeh)에서 발견된 조소상과(그림 21) 팔미라의 군인이 튜닉속에 착용한 바지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파르티아 왕조 말기의 수직주름바지의 한 변형으로 생각되어진다. 바지 중간에 붙인 바이어스 장식에는 (그림 13)에서 동그라미형과 나뭇잎 모양을 엮어 놓은 것, 또 (그림 21)에서 보이는 동그라미를 여러 겹 겹치고 나선형으로 연결시킨 무늬 등이 보인다



〈그림 20〉 수직 주름의 바지, 비스툰, 기원 후 1-2세기⁷⁰⁾



〈그림 21〉 바지 중간에 바이어스 장식이 붙어있는 수직 주름의 바지, 기원 후 2세기⁷¹⁾

*파르티아 왕조 바지의 형태와 착용시기, 착용지역등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파르티아 바지 의 분류

바지 형태	기본형	착용 시기	착용 지역
수평주름 바지	거의 수평으로 주름이 있는 바지	초기	서부
등근 옆 주름 바지	옆 주름이 등근 모양을 만들며 늘어져 있는 드레퍼리 형태 a)기본형+앞면에 장식 바이어스	초기, 후기, 말기	서부, 동부
수직주름 바지	직선의 수직 주름 바지 a)기본형+앞면에 장식 바이어스	초기, 후기, 말기	서부

V. 파르티아(Parthia) 왕조 남자 복식의 착용유형 분류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복식을 착용유형 별로 분류하여 파르티아 복식이 어느 시기에 어떤 유형별로 어떤 신분에 의해 착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1. 앞여밈형 저고리와 바지

앞 여밈형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조소상중에서 샴미(shami)의 왕자상과 앓수르(Assur)의 제사자상 또 부트카라(Butkara) 왕의 상

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외에 이 유형은 주로 파르티아 동부 지역 발굴품들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는데,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쿠르간 테페(Kurgan Tepe) 근처 오르라트(Orlat)에서 발굴된 A.D. 1세기로 편년되는 조소상과 아프카니스탄(Afghanistan) 북쪽 킬라 테페(Tilla Tepe)에서 발굴된 작품으로 B.C. 2세기 후반에서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로 편년되는 조소상에서 앞여밈형 저고리와 바지가 관찰되고 있어⁷²⁾ 이 유형은 주로 동양과 서아시아 문물이 만났던 곳으로 설명된 짜그로스(Zagros) 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파르티아 왕국 동부 지역에서 주로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튜닉과 바지

튜닉에 바지를 착용한 스타일은 왕조 초기에서 말기까지 파르티아 왕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복식의 형태인데, 파르티아 왕조 초기에는 주름있는 드레퍼리형 튜닉이 왕조 초기(B.C. 140)에 나타나는 수평주름 바지와 초기 후반부(B.C. 1세기)에 등장하는 등근옆 주름 바지와 함께 착용되어져 주름있는 드레퍼리형 튜닉은 비교적 초기 스타일로 생각된다. 또한 파르티아 왕조 후기와 말기에는 몸에 타이트한 튜닉과 장식 있는 튜닉이 등근 옆 주름 바지와 수직주름 바지와 함께 착용되어졌다.

<표 3> 착용유형 분류

착용유형		착용시기	착용지역	착용자	
앞여밈형저고리 + 바지	앞여밈형저고리	수평주름바지			
		등근옆주름바지	B.C. 1세기 (?) A.D. 2세기 (?) A.D. 1세기 초	샤미(shami) 부트카라(Butkara)	왕자 왕
		수직주름바지			
튜닉 + 바지	몸에 타이트한 튜닉	수평주름바지			
		등근옆주름바지	말기	훈에 아즈다르 (Hunge Azdar)	
		수직주름바지	A.D. 1-2세기	비스툰(Bistun)	제사장
	주름있는 드레퍼리형 튜닉	수평주름바지	B.C. 140	바르드에 산데 (Barde Neshandeh)	엘리마이스 (Elymais) 제사장
		등근옆주름바지	B.C.1세기 혹은 A.D. 2세기 A.D. 2세기	샤미(shami) 팔미라(Palmyra)	왕
		수직주름바지			
	장식 튜닉	수평주름바지			
		등근옆주름바지	A.D. 1-2세기 A.D. 2세기	하트라(Hatra) 수사(Susa)	왕 관리(Satrap)
		수직주름바지	A.D. 2세기 A.D. 2세기	하트라(Hatra) 팔미라(Palmyra)	귀족 군인
코트 + 튜닉 + 수평주름 바지	코트+몸에 타이트한 튜닉	수평주름바지			
		등근옆주름바지			
		수직주름바지	B.C. 140	바르드 에 네산데(Bard-e Neshande)	왕, 왕수행원
	코트+장식 튜닉	수평주름바지			
		등근옆주름바지	A.D. 2세기	하트라(Hatra)	왕
		수직주름바지			

앞여밈형 저고리와 바지가 짜그로스(Zagros) 산맥을 중심으로 주로 동쪽 지역에서 착용되어진 것에 비해 튜닉과 바지의 유형은 짜그로스(Zagros) 산맥을 중심으로 주로 서쪽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지방의 생활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짜그로스 산맥 서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유목 생활이 아닌 농경 생활을 해 왔던 곳이므로 이 지역에서 착용한 복식은 파르티아의 동부에서 유목 생활을 위해 착용했던 복식보다는 덜 활동적이나 보다 더 섬세한 스타일로 바뀐 것 같다. 이곳은 파르티아 왕조 초기 때인 셀로이키드 왕국 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고 또한 하트라(Hatra), 팔미라(Palmyra) 등 동 서역의 무역로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있던 곳이므로 이 지방의 튜닉과 바지는 드레퍼리의 유연성과 그 화려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코트, 튜닉과 바지

코트는 항상 튜닉과 바지를 착용한 후에 착용했는데, 초기와 후기 왕과 왕 수행원들에게서만 관찰되므로 파르티아 왕조에서 지배계층들의 전유물로 착용되어진 듯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동,서양 문화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페르시아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을 분석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고리는 앞여밈 형과 튜닉 그리고 코트등 세가지 형태가 있었다.

- 1) 앞여밈 형 저고리는 길이가 엉덩이까지 오고 V자형 목둘레를 형성하며 앞에서 여머지는 형태로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스타일이다.
- 2) 튜닉은 소매가 좁고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식의 형태로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되어지며 목둘레는 원형이나 트임은 확실하지 않았다. 튜닉은 파르티아 시대 전, 후기 전반에 걸친 예술품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

형으로는 몸에 타이트한 스타일과 드레퍼리형이 있다. 드레퍼리형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형태로 파르티아가 문화 전반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던 기원후 2세기 까지 착용된듯하다. 그 이후에 튜닉은 파르티아 고유의 몸에 타이트한 스타일로 변화하며 또한 부의 축적으로 인한 문화의 화려함을 반영하듯이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변화하였다.

- 3) 코트는 길이가 짧은 앞 여밈형 저고리와 형태는 거의 같으나 길이가 길고 착장방법이 달라 앞에서 여머지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로 짧은 여밈형 저고리보다는 약간 후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고 있다.

둘째, 바지는 파르티아 복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수평 주름의 바지, 등근 옆 주름의 바지, 수직 주름의 바지등 크게 세 형태로 구분되었는데,

- 1) 수평주름 바지 - 바지에 거의 수평으로 주름이 있는 형태로 약간 타이트한 스타일로 파르티아 초기의 바지형태로 추측된다.
- 2) 등근 옆 주름의 바지- 바지 전체에 등근 옆 주름이 늘어져 있는 드레퍼리형으로 이 또한 파르티아 복식에 나타난 헬레니즘적 요소로 생각되었다. 바지는 속바지와 그 위에 입은 겉 바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마 민족에 어울리게 말 탈 때의 기능성을 강조한 복식으로 이해되었다.
- 3) 수직 주름의 바지- 직선의 수직 주름 바지로 약간 볼륨이 있는 형태로 파르티아 초기와 중, 후기에 왕과 그 수행원, 또 제사장의 조소상에서 관찰되어 파르티아 지배계층들이 착용했던 형태로 생각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착용된 복식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앞 여밈형 저고리는 주로 등근 옆 주름 바지와 함께 짜그로스(Zagros) 산맥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주로 하는 동쪽 지역에서 파르티아 왕조 전반에 걸쳐 착용되어졌으며 튜닉과 바지의 유형은 짜그로스(Zagros) 산맥을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주로하는 서쪽 지방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유형 또한 파르티아 왕조 전반에 걸쳐 착용되었던

보편적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코트는 항상 튜닉과 바지 위에 착용되어졌는데 파르티아 왕조 초기, 후기에 특수계층에서만 관찰되었다.

참고문헌

- 1) 서구에서 쓰는 이름으로 혹은 아르사케스(Arsaces)라고도 함, 원래는 아르샤(Arshak)이다.
- 2) Colledge, Malcom A. R. (1977). *Parthian art*. London: Paul Elek London, p. 6
- 3) 장영수 (2003). 페르시아 복식 중 캔디스(Kanys)와 페르시아 드레스(Persiadress)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7(2), pp. 15-25; 장영수 (2003). 페르시아(Persia)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 시대 아파다나(Apadana) 계단 압현도에 묘사된 복식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1), pp. 1-11; 장영수(2005). 페르시아(Persia)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 시대 머리쓰개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1), pp. 41-54.
- 4) 고대 페르시아로 - Parthawa, 그리스어로- Parthyene (*Brockhaus Enzyklopedie* 1991. Bd. 16., F. A. Brockhaus Mannheim, p. 564).
- 5) Curtis, Vesta Sarkhoshi (2000). *Parthian culture and costume, in mesopotamia and iran in the parthian and sasanian periods: c. 238-AD 642*.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p. 23
- 6) Ghirshman, Roman (1962). *Iran, parthien und sasani-den*. Muenchen: Verlag C. H. Beck Muenchen, Pl. 20.
- 7) *Der Neue Pauly Enzyklopaedie der Antike* (2000). Bd. 9. Stuttgart, Weimar: Verlag J. B. Metzler, pp. 371-375 ; *Lexikon der Alten Welt*(1965). Zuerich und Stuttgart: Artemid Verlag, p. 2230; Brockhaus Enzyklopaedie, *op. cit.*, p. 564; Colledge, Malcolm A. R., *op. cit.*, pp. 6-20; Ghirshman, Roman(1962). *op. cit.*, pp. 15-17; Herrmann, Georgina (1977). *The iranian revival*. Oxford: Elsevier, pp. 38-40; Curtis, Vesta Sarkhoshi (2000). *op. cit.*, p. 23; Wiesehofer, Josef (1993). *Das antike persien. duesseldorf: Albatros verlag*, pp. 163-204; Wiesehofer, J. (2004). *Vermittler zwischen Ost und West in Die Parther in Persiens Antike Pracht, Katalog der Ausstellung des Deutschen Bergbau-Museums Bochum Bd. 2*, p. 410.
- 8) 카스피해 동쪽과 카라쿰(Karakum) 사막의 서쪽 지역에 있었던 도시로 파르티아인이 유목민 생활을 하던 곳으로 지금의 아슈카바드(Aschchabad) 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Ghirshman,R.(1962). *op. cit.*, p. 29).
- 9) Curtis, Vesta Sarkhoshi (2000). *op. cit.*, p. 24.
- 10) *Ibid*.
- 11) Brockhaus Enzyklopaedie., *op. cit.*, p. 564; Ghirshman, R. (1962), *op. cit.*, pp. 17- 18.
- 12) Curtis, Vesta Sarkhosh (2000). *op. cit.*, p. 23.
- 13) Rosenfield, John M., (1967). *The dynastic arts of the kusha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p. 164; Kawami, Trudy(1987). *Monumentalart of the Parthian Period in Iran, in Acta Iranica 26*, Leiden, p. 63.
- 14) Ghirshman, Roman (1962). *op. cit.*, p. 1.
- 15) *Encyclopaedia Iranica* (1987). *Vol. I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New York, p. 580.
- 16) Kawami, T. (1987). *op. cit.*, p. 140; Kawami, T. (1992). Clothing iii, In the Arsacid Period, in *Encyklopaedia Iranica V*, p. 737.
- 17) College, M. A. *op. cit.*, Pl. 28b.
- 18) Ghirshman, R. (1962). *op. cit.*, Pl. 125.
- 19) Mathiesen, Hans Erik (1992). *Sculpture in the parthian empire II, catalogue*, Aarhus University Press, p. 192, Fig.. 43.
- 20) Kawami, T. (1992). *op. cit.*, p. 738.
- 21) Sellwood, David (1980). *An introduction to the coinage of parthia*, London, Type 7-13; Curtis, V. S. (2000). *op. cit.*, p. 23; Sherwin-White, S. M. and Kuhrt, A., (1993). *From Samarakand to Sardis. A new approach to the Seleucid empire*, London, p. 89-90. 이 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영수 (2005). 프리기아(Prygia) 모자에 대한 연구. *복식*, 55(4), pp. 138-150 참조.
- 22) Kawami, T. (1987). *op. cit.*, p. 141.
- 23) 샴미(Shami)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란의 경계인 짜그로스(Zagros)산맥에 있는 골짜기로 이란 쪽에서는 서쪽지역
- 24) Stein, Aurel (1940). *Old routes of Western Iran*, New York.: Greenwood Press Publishers, pp. 130-133; Seyrig H, (1939). *Antiquites Syriennes 26. La grande statue parthe de Shami et la Sculpture Palmyriennes*, in *Syria* 20, pp. 177-183.
- 25) Kawami, T. (1987). *op. cit.*, p. 58.
- 26) Ghirshman, R. (1962). *Persian art*, New York, p. 87.
- 27) Stein, A., *op. cit.*, p. 156.
- 28) Kawami, T. (1987), p. 60.
- 29) Bachman, Walter (1927). *Felsreliefs in Assyrien, in Wissenschaftliche Veroeffentlichungen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WVDOG) 52*, Leipzig, Pl. 19, 20.
- 30) Wiesehoefe, J.(2005). *op. cit.*, pp. 189-191.
- 31) *Ibid*, pp. 190-191.
- 32) 근동지방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제조된 큰 상은 아나톨리아(Anatolia) 지투(Situ)에 있는 콤파게네(Kommagene)의 왕 안티오코스(Antiochos) 1세(기원전 69-34)의 무덤인 님르드 다그(Nimrud Dagh)에 만들어진 큰 돌석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Ghirsh-

- man, R. (1962). *op. cit.*, pp. 57-65; Kawami, T. (1987). *op. cit.*, pp. 61-62)
- 33) Ghirshman, R., *ibid.*, p. 89, Pl. 99.
- 34) Curtis, V. S. (1993). *A parthian statuette from susa and the bronze statue from shami*, in Iran, Vol. XXXI, London, Fig. 1.
- 35) Kawami, T. (1987). *op. cit.*, p. 183.
- 36) *Ibid.*, p. 75.
- 37) 엘라마이스(Elymais) 왕국은 박티아리(Bakhtiari) 산맥 수시아나(Susiana) 평원 남동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왕국으로 아마도 수사(Susa) 까지 그 세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Ghirshman, R. (1962). *op. cit.*, p. 352.)
- 38) Kawami, T. (1992). *op. cit.*, p. 739.
- 39) Kawami, T. (1987). *op. cit.*, p. 75.
- 40) *Ibid.*: Hill, George Francis(1922). *Catalogue of the greek coins of Arabia, mesopotamia and persia*, London, Pl. XXXVIII, 1 & 8.
- 41) Kawami, T. (1987). *op. cit.*, p. 75.
- 42) Curtis, V. S. (2000). *op. cit.*, p. 24.
- 43) Kawami, T. (1987). *op. cit.*, Pl. 26.
- 44) *Ibid.*, Fig. 13.
- 45) Herrmann, Georgina. *op. cit.*, p. 39.
- 46) Kawami, T. (1987). *op. cit.*, pp. 144-145; Kawami, T. (1992). *op. cit.*, p. 739; College, M. A. *op. cit.*, p. 87.
- 47) Kawami, T. (1992). *op. cit.*, p. 739.
- 48) Ghirshman, R. (1962). *op. cit.*, p. 56.
- 49) College, M. A. *op. cit.*, Pl. 14.
- 50) *Ibid.*, Pl. 14b.
- 51) Kawami, T. (1987). *op. cit.*, Pl. 66.
- 52) Brentjes, Burchard(1978). *Die iranische Welt vor Mohammed*. Leipzig: Koehler & Amelang, Pl. 95; Ferrier, R. W. (Edited by)(1989). *The Arts of Persia*.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51, Pl. 6.
- 53) Ghirshman, R. (1962). *op. cit.*, p. 94, Pl. 105.
- 54) *Ibid.*, p. 78, Pl. 91.
- 55) *Ibid.*, p. 56, Pl. 70.
- 56) Kawami, T. (1987). *op. cit.*, p. 141, Pl. 26. T. Kawami, *ibid.*, p. 738.
- 57) Kawami, T. (1987). *ibid.*, p. 142.
- 58) Ghirshman, R. (1962). *op. cit.*, Pl. 100.
- 59) Walser, Gerold (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Berlin: Verlag Geber, Mann, Tafel. 65, XV. Delegation(Baktrer) No. 2.
- 60) *Ibid.*, Tafel. 65.
- 61) Godard, Andre (1965). *The art of iran.*, New York, p. 158; Kawami, T. (1987). *op. cit.*, p. 141.
- 62) Kawami, T., *ibid.*, p. 141; Kawami, T. (1992). *op. cit.*, p. 738.
- 63) Faccenna, Domonico (1964). *Sculptures from the sacred area of Butkara I(Swat, W. Pakistan) Vol. II, 3*, Roma: Instituto Poligrafico Dello Stato, p. 145, 146, Pl. CDLXXX, Pl. CDLXXXI; Curtis, V.S. (1993). *op. cit.*, Pl. XXIIc.
- 64) Seyrig, H., *op. cit.*, p. 180, Pl. XXV; Curtis, V. S. (1993). *ibid.*, p. 67, Pl. XXIIe.
- 65) Curtis, V. S. (1993). *ibid.*
- 66) Kawami, T. (1987). *op. cit.*, p. 124.
- 67) Walser, Gerold (1966). *op. cit.*, Tafel. 65.
- 68) Seyrig, H. *op. cit.*, Pl. XXV.
- 69) Kawami, T. (1987). *op. cit.*, Pl. 60.
- 70) R. Ghirshman (1962). *op. cit.*, Pl. 66.
- 71) Hans Erik Mathiesen, *op. cit.*, Fig. 27.
- 72) Curtis, V. S. (1993). *op. cit.*, p. 67.